

나의 수행법

〈법화경〉 사경기도 체험기 - 최태숙 (中)

〈법화경〉이 어떤 경전인지도 몰랐다. 그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8년간 설하신 경 정도로 알고 있었다. 〈법화경〉 사경은 경산도량에서 처음 시작했다. 총 7권으로 돼있는 사경노트를, 매일 1권을 3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경을 했다. 회향하는 데 한달 3일정도 걸렸다. 그러던 중, 문득 '내가 화를 내지 않게 됐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으니, "그래, 당신 요즘 화를 안 내더라"고 인정해줬다.



됐다. 짝에 다니지 않았던 이 도반은 이웃 집 불자에게 사경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법화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경을 하면 좋다는 권유가 설득력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 도반은 이웃 집 불자들의 도움으로 경산도량에 나와 지금 〈법화경〉 사경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2권부터는 사경을 좀 소홀히 했다. 일이 있어 못하는 날도 생기고 4권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자 화를 내지 않던 현상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다락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병원에서 한 달간 꼼짝달싹 누워

그 상황이 궁급했다. 계기가 뭐였을까? 그 도반이 한글 〈법화경〉 사경을 6번 썼을 때, 부처님의 가피 입은 이야기에서 확 인할 수 있었다. 마흔 살 때부터 고혈압을 앓았던 도반은 약을 끊고 싶었다.

사경하는 동안 화내지 않는 자신 느껴 어머니 간병하며 감사한 마음 우러나

계시고, 두달간 집에서 요양을 했다. 대소변도 다 받아 내야 했다. 처음 며칠간은 힘도 들고 절에도 가지 못해 마음은 좌절했다. 남편이 쉬는 날 하루 교대를 해주면, 그제서야 집에 와 〈법화경〉 사경을 했다.

그런데 사경을 하면서 약을 끊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지금도 〈법화경〉 사경하고 있다. 〈법화경〉 사경공덕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잠시 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어머니 병간호를 할 수 있는 것도 내 복을 짓게 해주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시방 세계가 부처님 계신 곳인데 꼭 절에 가지 않더라도 기도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힘들게 생각되던 병간호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법화경 바른수행 기도회'에서는 예불과 사경과 독송과 참선으로 2시간 기도를 한다. 참선은 스님이 지도해준다.

이후, 그 도반과 광복절 전후로 제주도 평화풍일 불사리탑 〈법화경〉 봉안식을 함께 갔다.

스님은 기도를 할 때는 일념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것을 해서 될까 안 될까 생각이 들어오면 그 기도는 헛것이라' 했다.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다.

그런데 〈법화경〉 봉안식이 시작된다. 얼마 후, 하늘에 떠있는 해가 방광을 했다. 그리고선 사방에 꽃비가 내렸다. 너무나 신기한 현상을 목격한 난 부처님의 위대한 힘에 감격했다.

그러던 중, 한글 〈법화경〉 사경하는 한 도반의 사연을 듣게

기도의 에너지가 모아지니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우리에게 위신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모두들 환희심이 나서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주지 스님은 "해가 방광을 하면 할 뿐, 우답바라가 피었으면 피었을 뿐, 불자는 그런데 끄달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신심이 깊지 못했던 난 그 현상을 체험하고서야 깊이 믿는 마음이 생기고 신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계속)

■ '법화경' 바른수행모임 회장

'번뇌라는 도적' 계율로 붙잡아라

해인총림 울주 종진 스님, 불교서울전문강당 초청 '계율과 수행' 특강



해인총림 울주 종진 스님이 12월 8일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마련한 초청특강에서 '계율과 수행'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수행없이 절대로 열반과 해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이 12월 8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마련한 초청 특강에서 해인총림 울주 종진 스님은 40여 대중에 "오직 지계율으로써 수행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행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수행의 첫 걸음을 옮기게 내뉘어야 하고, '번뇌라는 도적'은 계율로 붙잡아야 한다고 법문했다. '왜 계율이 필요하고, 수행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날 스님의 특강내용을 요약한다.

른 믿음'이 시작된다.

계율이 수행에 필요한 까닭은?

흔히들 과정은 어떻게 되든 목적에만 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도반 깨달으면 됐지 계율이 뭐가 중요하냐고 주장하는 출·재가자들이 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부처님은 목적도 과정도 모두 중시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로서 강조했다.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철저한 지계 없는 절대 불가능하다.

논서(論書)에서는 계정해 삼학 가운데, 계가 첫 번째라고 강조한다. 부처님은 사성제에서 도제(道制)가 바로 팔정도요, 팔

강조하고 있다. 피부암에 걸렸으나 고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삼학 가운데 계를 처음에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단 안정시키기 위해 계율 제정

스님들은 스님답게 살 의무가 있고, 재가신도는 재가신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다하도록 만든 것이 계율이다. 여기서 '계'란 글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두 손에 무기를 들고 경비를 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 받으며 사는 걸까? 번뇌 때문이다. 번뇌로 죄를 짓고, 그 죄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고통의 원인인 번뇌를 없애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계란 도구이다.

〈율장〉에 의하면, 처음 계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칠불통계(七佛通戒)였다. 그 가르침만 갖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러다 부처님 성도 후 12년이 되던 어느 해, 속가 모친의 간곡한 정에 못 이겨 자식을 낳아준 수비나 비구의 문제가 발단이 돼 본격적으로 계율이 하나 하나씩 제정됐다. 부처님이 계율을 마련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교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란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계율은 해탈로 가는 '사다리' 출·재가 모두에게 의무사항 한가지 수행법 정해 집중을

정도가 중도라고 말한다. 맹신도 광신도 아닌 바른 믿음은 바로 중도적인 믿음이라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팔정도에서도 정어(正語)바른 언어적 행위 정업(正業)바른 신체적 행위 정명(正命)바른 직업과 규칙적인 생활에 의한 바른 생활은 바로 삼학 중 계에 해당하는 덕목이다.

그래서 〈성실론〉에서는 "계는 번뇌라는 도적을 붙드는 것과 같고, 정은 번뇌 도적을 포박하는 것이며, 해는 번뇌라는 도적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고 말한다. 즉 번뇌라는 도적을 붙들어야 포박할 수도 있고, 그 번뇌라는 도적을 꼼짝 못하게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니, 계율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 계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 가운데, '계피(戒皮)'란 말도 있다. '계의 피부'란 말이다. 그리고 정(定)은 살, 해(慧)는 뼈에 비유한다. 즉 '계피정육(戒皮定肉慧骨)'이란 말로 계의 중요성을

지계에는 출·재가 따로 없다

이처럼 중요한 계율은 출·재가에게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이같이 생각하거나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출·재가자든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사항이지, 자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교단을 구성하는 출가 5부중(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 재가 2부중(우바새, 우바이)이 계율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통계 조사조차 없다. 계율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다.

선(禪)에서 열반을 안심입명이라 하는데 그 자리는 수행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진정한 불자라면 수행을 해야하고 계율 정신으로 믿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수행의 첫걸음, '바른 믿음' 키우는 계율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맹신이다. 또 미친 사람처럼 믿는 것은 광신이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다 배격했다. '바른 믿음'을 정신(正信)이라 하는데, 그 반대는 사신(邪信)이다. 빼놓아진 믿음은 광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다.

〈지도론〉에서는 "불법 대해에는 믿음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종교는 믿음이 없이 성립될 수도, 깊이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맹신하고 광신을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열반에 도달할 수 없고,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곧 해탈할 수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계율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가는데 '사다리'와 같다. 계율에서 수행의 첫걸음인 '바

누구도 계율에 융통성 부여할 수 없다

질의응답

문1 : 오계를 받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때마다 참회를 하지만, 늘 이처럼 법계를 반복한다. 참회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인가?

답 : 지킬 수 있는 계율만 지켜도 된다. 이를 분수(分受)라 한다. 지계에 자신이 있으면 수계할 때 각 계율에 대해 대답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답하지 마라. 거짓말을 할 바에는 '지키겠다'고 대답하지 않는 좋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계율을 모두 지킬 수 없다. 참회를 하면, 더러운 옷을 세탁하듯이 깨끗해진다. (계속)

꽃해진다. 잘못을 했어도 바로 뉘우치면 그것은 용서가 된다. 단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

문2 : 현대사회에서 중도적 삶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계율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답 : 개차(開遮)법은 부처님만이 할 수 있다. 지금은 무불(無佛)시대다. 어느 누구도 계율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없다. 여기에는 방편도 적용 안 된다.

문3 : 스님께서는 승보(僧寶)를, 구족계 받은 비구·비구니만 적용된다고 했다.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는 승보에 속하지 않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답 : 사미는 넓은 의미에서 비구에 속하나 승보에 들지는 않는다. 사미는 사미라 하지, 사미승이라 하지 않는다. 식차마나,

사미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출가 5부중 가운데, 비구 비구니를 승보라 하고, 나머지 3부중은 승보가 아니다. 〈석문귀경의(釋門歸敬儀)〉에 따르면, "비구 비구니 2부중이 승보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적혀있다. 사실 승의 개념도 처음에는 비구만을 의미했다. 그러다 구족계만 받으면 도를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승보에 속하게 됐다.

문4 : 사회적 이슈인 즐기세포에 관련된 종교적 이견이 있다. 스님의 의견은?

답 : 불교에서 생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다. 계율이 윤리의 문제지만, 즐기세포 관련 사항은 불교의 생명관과 결부시켜 이해할 부분이다. 내가 성체세포나 배아줄기세포나 하는 것을 계율과 결부시키면,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

행 동 봉 국운융창 및 대구경제 회복기원 대법회

대구 지하철 참사 영령 위령제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영령 위령제

푸리라마 린포체 마정수기 법회

- 일시 : 불기(2549(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엑스코)유통단지
- 주최 : (사)국제불교승가회
- 주관 :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 후원 : 대한불교종단연합회
- 문의 : 053)986-0344 ~ 6 호국불교단체협의회 010-7360-8828 / 011-502-3966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법타스님의 '달마도'와 인도 부다가야에서 가져온 '보리수잎'을 무료증정합니다.

대구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회를 병행합니다
대구지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